

“공부·여행·소설, 매 순간 나와 동행”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차노희 작가

‘투마이 투마이’ ‘물공포증인데 스쿠버다이빙’ 출간

뉴욕서 2달 머무르며 문화여행...창작 영감 충전

작가, 학생, 선생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글을 쓰는 이가 있다. 각기 다른 ‘신분’은 세상을 보는 다른 세계관을 갖게 했을 것이다. 하나의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어떻게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그러나 글을 쓰는 그에게 이 세 역할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바로 ‘여행’이다. 그에게 “여행은 수평적 관계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시간”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에(2009) 출신 차노희 작가. 그는 얼마 전 의미있는 두 가지 결실을 맺었다. 하나는 두 권의 책(소설집, 에세이집)을 낸 것이고, 또 하나는 방학을 이용해 뉴욕에 다녀온 것이다.(그는 6번째 광주대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에서 디아스포라통합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차노희 작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며칠 전 귀국한 그는 “그동안 나름 학생들과 잘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여행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면서 “출국 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갔기 때문에 입국해서도 따로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웃었다.

사실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적잖이 딱딱하고 지루한 일이다.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차 작가에게 그것은 아마도 여행인 듯 싶다.(여기에서 여행은 혼자 하는 배낭여행을 말한다)

“뉴욕에서 두 달을 머무르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선진국의 위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뉴욕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전시해 놓은 듯한 자연사 박물관, 세계 현대 미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모마(MoMA), 미국 현대 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휘트니 미술관 등을 둘러봤지요”

차 작가는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용기가 많은 것 같다. 거의 매년 방학을 이용해 외국 여행을 다닌다. “직접 가서 현지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뿐이라. 여행을 하며 원초적인 나, 다시 말해 ‘긍정적인 나’를 발견한다. 글을 쓰는 한 그의 여행이 지속된다는 예상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여행도 늘 그렇듯 특별한 계획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에 무게를 뒀을 뿐입니다. 디아스포라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있기에 코리안 타운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들과 심층인터뷰를 조금 진행했는 뿐이죠. 실은 이러한 과정은 취재 후 소설을 써왔던 기존 방식과 동일하기에 특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형식을 더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펴낸 소설집 ‘투마이 투마이’, ‘물공포증인데 스쿠버다이빙’은 모두 여행의 산물이다. 가르침, 배



움, 여행, 글쓰기는 서로 맞물린 수레바퀴처럼 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과 잘 놀아보자’라는 모토가 그것이다.

두 번째 작품집은 지난 2012년 첫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발간 이후 9년 만에

펴냈다. 첫 작품집을 낼 때는 “세상의 고민이라는 고민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무렵이라 ‘지하세계’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당시 소설에서는 단편 한편마다 꼭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 심각했다. 돌아보면 내면에 그러한 어두운 심연이 드리워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후로 차 작가는 여행을 다녔고, 문예창작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두 번째 박사학위에 도전중이다. 그리고 여행 에세이집을 펴냈고, 장편소설도 발간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하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며 웃었다.

이번 소설들은 등단 이전부터 최근까지 쓴 작품들을 한 데 묶은 것이다. 소설가의 인생에서 “나를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 단편보다는 장편에 집중하고자 하는 결심의 결과물”이다.

작품집과 함께 출간한 스쿠버다이빙 관련 에세이집은 지난해 이집트 다합이라는 곳에서 다이빙 마스터 과정을 몸소 체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국내도 아닌 그것도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에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다니, 그의 용기와 도전정신이 놀라울 뿐이다.

“매일 30kg 장비를 메고 하루에 4-6번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이 끝나면 다음 다이빙 시간까지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잔기를 말려야 했지요. 공기통 끝이 등살갓을 파고들었습니다. 잔물에 손톱 끝이 갈라졌으며 손가락은 장비 세팅과 반복으로 부어올랐구요.”

그럼에도 그는 산호초의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회상한다. 하얀 모래사장고 수면으로 내리비추는 달빛만으로 바다 속 수영은 그 자체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차 작가는 앞으로도 ‘한바탕 잘 놀고’ 싶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공부와 여행, 소설 창작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와 동행하고 공유하는 일기기에 결국 일련의 삶들은 모두 소설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울림, 가을을 열다

내셔널솔리스텐앙상블, 9월 4일·12일 공연

다가오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 내셔널솔리스텐앙상블(사진)은 오는 9월4일, 12일 ‘가을을 열다’와 ‘울림’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4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가을을 열다’ 무대는 비발디, 피아졸라, 브람스를 비롯해 이흥렬, 김광석 등의 곡으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비발디 ‘사계’ 중 ‘가을’,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 ‘오 솔레미오’, 브랜든 그랩햄 ‘유 레이지미 업’,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엔니오 모리코네 ‘가브리엘스 오보에’ 등이다. 또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이흥렬 ‘꽃 구름 속’,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격정 말아요 그대’ 등도 들려준다.

모차르트, 윤학중, 노영심 등의 곡으로 채워지는 12일(오후 5시·광주시립미술관)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직’을 시작으로 윤학중 ‘마중’, 토마스 알비노니 ‘아다지오’, 노영심 ‘시소타기’, 영화 ‘라벤더의 여인들’ OST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바리톤 김홍석, 오보에 고용선, 소프라노 박선경, 바이올린 이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내셔널솔리스텐앙상블은 지난 2018년 창단해 지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월요 콘서트 바로크이야기’, 무등울림 ‘비발디 사계’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전석 초대. 문의 010-7712-4431.

/전석재 기자 ej621@kwangju.co.kr



광주대 문예창작과 마소현 학생 등 4명 출판사·콘텐츠 업체와 작가 계약 눈길

장르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역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잇따라 출판사, 콘텐츠 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끈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마소현(4년), 김자은(1년), 김나영(1년), 김대현(3년) 학생이 출판사 등과 작가 계약을 맺고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대는 올해 1학기에만 문예창작과 4명의 학생이 장르문학에 성과를 보임으로써 장르문학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가장 먼저 웹소설 사이트 ‘조아라’에서 일일 연재 베스트 1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린 마소현 학생은 마야&마루 출판사와 작가 계약을 맺었다. 웹 무협소설 작가로 역량을 인정받은 김자은 학생은 (주)뽕미디오와 계약을 맺었으며 광주대 주최 전국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에서 입상해 올해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김나영 학생은 (주)상출판, (주)청어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김나영 학생은 카카오페이지와의 런칭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김대현 학생은 (주)파피루스출판사와 작가 계약을 맺고 이름을 알리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해 7월에는 국내 최대 웹소설 플랫폼 (주)문피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피아 아카데미를 통해 전속 작가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키다리스튜디오와 전국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 개최, 웹소설 콘텐츠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인 작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교보문고 ‘손글씨대회’ 9월5일까지 독자투표

교보문고는 오는 9월 5일까지 제7회 교보손글씨대회 독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전달과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7회째를 맞았다.

투표는 예선과 본선 1차 심사를 통과한 아동, 청소년, 일반 부문의 각 10점씩 총 30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인터넷교보문고 손글씨캠페인 투표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책 속의 감명받은 문장을 손글씨로 작성하는 행사인 교보손글씨대회는 올해 총 8520점이 응모됐다. 부문별로는 일반 부문의 참여가 36%로 가장 많았고, 아동 부문 35%, 청소년 부문 29%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발췌한 문장의 도서는 ‘어린 왕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빨강머리

리엔’ 순이다.

최종심사는 으뜸상 10점, 버금상 20점을 선정한다. 으뜸상 10명에게는 교보문고 상품권 50만원과 부상을, 버금상 20명에게는 상품권 20만원과 부상을 증정한다.

또한 으뜸상 중에 한 작품을 선정하여 디지털포트로도 제작한다.

한편 투표는 (http://asq.kr/Zyrt3J)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076-0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